

3. 북한의 남한 관광객 허용 검토

- (허용 검토 배경) 외화벌이 및 체제 홍보 수단으로의 활용 목적
- (북한 관광 사업) 금강산과 나진·선봉을 비롯한 동북부 지역을 집중 개발
 - 4대 지구는 ① 나진·선봉 지구, ② 회령-온성 등의 북부 국경 도시 중심의 두만강 지구, ③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 지구, ④ 함북 칠보산 지구
 - 그러나 투자 자원 부족 및 폐쇄성, 상품 개발 능력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흡
- (남북 관광 전망) 나진 지구의 공동 개발 및 남한인 관광 허용 가능성 존재
 - 그러나 비무장 지대나 금강산 공동 개발은 군사·정치면에서 북측 협조 난망
- (기업 대응) 나진 지역과 원산을 중심으로 시범적 패키지 상품 개발 추진
 - 속초~나진·선봉~훈춘~백두산, 설악산~금강산 관광 상품 개발 추진

○ 허용 검토 배경

- (개요) 북한은 실향민 대상으로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국인의 관광 허용 방침
 - 초기 단계에는 몇개 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것으로 알려짐 (독일 소재 한국경제정보원의 제공, KOTRA, 『북한 뉴스 레터』, 1998. 3.)
 - 특구 형태의 개발은 주민들의 사상 통제 및 체제 유지 목적
- (배경) 관광 교류는 남북한간 상호 이해가 합일치
 - ① (북한) 심각한 식량난 완화와 김정일체제 구축을 위한 외화 가득 필요성 증대
 - 3년 연속 식량 감산으로 98 신년사에서 '먹는 문제' 해결을 최우선 과제 선정
 - 외화벌이 수단 및 대외 개방정책 추진 의지 표방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
 - 접촉 지역 제한하에 인도적 차원의 교류 허용을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 목적
 - ② (남한)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 및 정경 분리의 남북 경협 활성화 동시 추진
 - 신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및 이산가족 사업을 최우선 남북 과제로 선정
 - 남북 대화 채널 확보,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'남북 연계 관광'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을 제의한 상태(통일부 업무보고)

○ 북한의 관광 사업 육성 계획

- 97년 4월, 금강산과 함께 4대 관광 지구를 지정하여 집중 개발 계획을 추진중
 - 금강산 지역을 동아시아 최대 국제 관광 단지(싱가포르 형태)로 개발할 계획 (한국관광공사, 『남북관광교류 기초자료집』, 1997. 12.)
 - 4대 관광 지구는 ① 나진·선봉 지구, ② 회령-온성 등의 북부 국경 도시 중심의 두만강 지구, ③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 지구, ④ 함북 칠보산 지구
- 나진 지대와 금강산 지역에 일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시설 확충 노력중
 - 원산~금강산간 관광 철도(101.5km)를 개통(97. 4)하고 원산 갈마 군사비행장을 개방(97. 9)하였고, 추가로 청진 어랑비행장도 개방할 예정
 - 평양~평북 향산간 관광도로(120km) 개통 및 백두산 천지에 케이블카 설치
 - 백두산 천지의 외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개방 추진
- 그러나 투자 자원 부족 및 사업 개발력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흡

-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관광지 접근의 부자유성, 관광 인프라 기반 시설 미흡, 高價의 여행 상품 및 제한된 관광코스 등 상품 개발의 다양성 부족 등

○ 남북한 관광 경험 전망

- 북한의 연내 남한 관광객 방북 허용 가능성 존재
 - 통제 가능 지역 및 비군사 보호 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 대해 공동 개발과 관광객 방북 허용 가능성 높음(백두산, 칠보산을 포함한 나진·선봉, 원산 명사십리 등)
- 반면 비무장 지대나 금강산 공동 개발은 군사·정치면에서 단기간내 가능성 미약
 - 금강산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인 만큼 단기간내 남북한 공동 개발이 쉽지 않음
 - 그러나 원산항에서의 해상 유람선 관광의 성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
 - 금강산 개발 사업은 이미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소에서 개발 계획을 검토중이며, 대만의 민간 대표단과도 협의 진행중임
 - 남한의 금강산 접근로는 ① 속초~원산간 해로(카페리) 이용 → 원산~금강산간 철도나 원산~고성간 연안 여객선 ② 항공기로 평양 도착후 평양~원산~금강산간 도로 이용 가능(한국관광공사, 『남북관광교류 기초자료집』, 1997. 12.)
- 시범적 차원에서 '나선 지구'는 관광 교류 및 단지 개발 성사 가능성이 높음
 - 북한은 관광과 산업 자금 유치 등 다목적 용도로 중점 개발 계획
 - 나선 지구를 백두산, 칠보산과 연계한 관광 사업은 물론,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(관광 및 중계 수송 기지, 수출 가공 기지로 개발)
 - 압록강 지구를 제외한 4대 관광지구가 모두 동북 지역의 나진·선봉과 인접
 - 나선 지대에 관광 관련 최초의 법규 제정(『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』 96. 7.)
 - 현재 남북한과 중국은 속초~나진~훈춘~연길~백두산 혹은 연길~원정교~나진·선봉~속초, 부산 등을 연결하는 3국간 관광 코스 개발 협의 진행중
- (한계) 본격적인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교류에는 한계가 있음
 - 신변 안전 보장 문제, 관광 인프라 기반 미비, 군사·정치면에서의 제한 등

○ 기업 대응

- 시범적 사업 차원에서 나진·선봉과 원산 중심의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추진
 - 속초~나진·선봉~훈춘~백두산, 설악산~금강산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추진
- 관광 사업 그 자체는 물론,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험 사업 개발에 관심
 - 관광 사업은 호텔 건설과 운영(종합 위락 시설 포함), 도로나 철로 보수 및 개설, 관광객 및 물자 수송 등과 연계한 대규모 경험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
- 투자 리스크의 분산 차원에서, 제3국과의 합작 및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진출 방안 모색이 바람직함

(홍 순 직 sjhong@hri.co.kr ☎724-4051)